강성률 교수의
철학 이야기

광주교육대학교 명예교수, 철학박사
유튜브 '강성률 철학티비'

출세의 달인들–정도전(3)

그러나 이 와중('제1차 왕자의 난')에 방원은 하나의 기회를 잡는다. 즉, 정도전 등이 태조(이성계)의 병세가 위독하다고 속이고, 한씨 소생의 왕자들을 궁중으로 불러들인 뒤 단칼에 그들을 죽이려 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것이다. 이에 방원은 자신의 사병(私兵)들을 동원하여 정도전 일파를 기습하여 모두 죽이고, 세자 방석을 폐출하여 귀양을 보내는 도중에 죽여 버린다. 그리고 이어서 방석과 같은 어머니를 둔 방번마저 살해하고 만다. 정도전에게는 '종친을 모해했다'는 죄명이 씌워졌으며, 그의 두 아들 정영과 정유는 아버지를 구하러 달려가다가 살해되었다. 얼마 뒤 조카 정담은 큰아버지와 사촌들의 죽음 소식을 듣고 집에서 자살했다. 오직 맏아들 정진만이 당시 태조를 수행하여 삼성재(三聖齋) 방문 길을 수행하던 중이라, 기적적으로 목숨을 구하였다.

이렇게 '1차 왕자의 난'이 마무리되자, 이방원은 짐짓 세자의 자리를 제2왕자인 방과(芳果-한씨 소생의 둘째 아들. 이방원의 친형)에게 양보한다. 이에 두 아들과 사위까지 잃어 크게 상심하고 있던 이성계는 왕위를 세자에게 물려주니, 유약(柔弱)한 세자가 왕위에 올라 정종(定宗)이 된 것이다.

그 후 '제2차 왕자의 난'이 일어난다. 비록 이방원이 실권을 장악하긴 했으되, 아직 사병을 거느린 동복형제(同腹兄弟)들이 여럿 있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인 넷째 아들 방간 역시 왕위를 이어받으려는 야심을 갖고 있었다. 바로 이때 지중추부사(정2품 관직) 박포(朴苞, 조선 전기의 무신)가 방간으로 하여금 군사를 일으키도록 충동질을 한다. '제1차 왕자의 난' 때 공을 많이 세웠음에도, 일등공신에 오르기는커녕 도리어 귀양을 갔던 박포는 '방원이 장차 방간을 죽이려 한다.'고 거짓말을 꾸며낸 것이다.

이 말을 믿고 방간은 사병을 동원하였다. 이를 눈치 챈 방원 역시 사병을 동원하여 개성 시내에서 치열한 시가전이 벌어졌는데, 결국 이 싸움에서 방원이 승리하여 방간은 유배되고, 박포는 사형을 당했다. 난이 평정된 뒤, 방원의 심복 하륜의 주청을 받아들인 정종은 상왕(上王) 태조 이성계의 허락을 얻어, 1400년 2월 방원을 세자로 책봉한다. 그리고 이어 11월 왕위를 방원에게 물려주니, 방원이 왕위에 올라 제3대 임금 태종이 된다.

한편, 자신의 큰 사랑을 받으며 자라난 이방원이 세자책봉 문제를 둘러싸고 형제들을 잡아 죽이니, 아비인 이성계의 입장에서는 기가 찰 노릇이었다. 더욱이 두 차례에 걸친 '왕자의 난'은 자신의 실권이 무너지는 사건이기도 했다. 분노와 울분에 가득 찬 이성계는 결국 함경남도 함흥으로 떠나버린다. 상왕이 함흥에 칩거하자 정통성에 흠집이 생긴 태종은 문안(問安) 사신을 자주 보낸다. 그러나 이성계는 번번이 화살을 쏘아 이 사신들을 모조리 죽이고 만다. 여기에서 '함흥차사'라는 말이 생겨난 것이다.

가겠다는 사람조차 없게 된 마당에 이성계의 옛 신하였던 박순(朴淳, 고려 말, 조선 초의 무신)이 사신을 자청하고 나섰다. 그는 새끼가 딸린 말 한 필을 데리고 길을 나섰다. 태상왕(현재의 왕 이전의 전전왕, 前前王) 이성계가 연회를 즐기고 있는데, 말의 구슬프고 애절한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것 아닌가? 박순이 의도한 것은 바로 모자(母子)간의 정을 상기시키는 것이었다. 부름을 받은 박순이 문안 인사를 하자, 이성계는 두 손을 덥석 잡았다.(계속)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 정착 위해 질서유지선 준수되어야

최근 우리 사회는 여러 분야의 사회문제로 빚어진 갈등으로 인해 집회 시위가 열리는 것을 거리에서 자주 볼수 있곤 한다.

질서유지선은 경찰통제선으로 불리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집시법 제6조제1항에 의한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를 받은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집시법 제13조1항에 의한 질서유지선은 일정구역 내에서만 집회·시위를 진행하도록 규제하는 것으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기 보다는 집회·시위 참가자들이 질서유지선 내에서 방해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자유롭게 자신들의 주장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과 동시에 집회로 인해 발생되는 교통체증 등의 피해가 시민들에게 가지 않게 하려는 취지로 설치하는 것이다.

집회시위시 질서유지선 준수는 집회 참가자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일반 시민에게는 통행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준법집회로 가는 척도인 것이다.

하지만 일부 집회에서는 아직도 집회 주최측과 경찰과의 약속을 깨뜨리고 본인이나 자신들이 속한 집단의 이익과 목적 달성을 위해 집회현장에 설치된 질서유지선을 넘어 이를 제지하는 경찰과 마찰을 빚으며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기도 한다.

이처럼 질서유지선은 집회 주최측과 경찰, 시민들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상호간의 약속으로, 집회 주최측에서는 질서유지선을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본인들의 주장을 호소하고, 경찰에서도 질서유지선을 최소한도로 정하여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며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관리한다면 집회를 바라보는 시민들로부터 신뢰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서구 선진국에서도 여러가지 사회문제로 인한 집회시위가 많지만 질서유지선은 정확하게 지켜지고 있다. 집회 참가자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질서유지선을 준수하여 집회를 진행한다면 국민의 평온권을 지키며 모두에게 공감받고 조화를 이루는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 함평경찰서 경비안보과 경위 전상배

오늘의 운세 2025년 5월 26일 월요일 (음력 4월 29일)

48년생 고치고 다시 써야 정답을 낼 수 있다.60년생 느리고 천천히 기초부터 다시 하자.72년생 도 아니면 모 배짱으로 맞서보자.84년생 서두르는 욕심 배가 산으로 간다.96년생 이야기가 담겨진 선물이 오고 간다.

49년생 실수도 잘못도 감싸주고 안아주자.61년생 군기 든 신병처럼 각오로 다시 하자.73년생 주연이 아닌 조연 뒤를 받쳐주자.85년생 늦어있는 공부 열심히 따라가자.97년생 자꾸만 작아져도 포기는 금물이다.

50년생 불필요한 걱정 바람에 쓸어내자.62년생 잊혀있던 얼굴 추억을 더듬어 가자.74년생 감동은 없어도 웃음은 커져 간다.86년생 부정의 이미지 색안경을 벗어내자.98년생 반대에 설득 당하면 땅을 쳐야한다.

51년생 낙제점 성적표 부끄럽고 초라하다.63년생 느긋한 여유로 비싼 값을 받아내자.75년생 살뜰한 배려에 친절함은 기본이다.87년생 따끔한 충고를 귀담아 들어보자.99년생 다시 한 번 약속 새로움을 향해 가자.

52년생 여전히 불안해도 한 우물을 파보자.64년생 부지런한 왕래 친구가 되어 간다.76년생 깎아 달라 흥정 얼굴을 두껍게 하자.88년생 시집살이 동거 입술을 물어 보자.00년생 다른 생각의 견과 머리를 맞대보자.

53년생 여럿이 함께 동지애를 뭉쳐보자.65년생 논란의 소지 게으름을 탓해야 한다.77년생 의외의 성과 부자 곳간이 되어 간다.89년생 하고자 하는 의지 반전을 불러낸다.01년생 참신하고 멋있다. 극찬을 들어보자.

54년생 여전히 진행형 건재함을 과시 하자.66년생 공들인 수고가 점수로 매겨진다.78년생 새로운 식구들 울타리가 환해진다.90년생 기쁨은 커지고 살림은 늘어난다.02년생 기대에 없던 반응 만세가 불려진다.

55년생 잠시 하는 위기 즐거움을 찾아내자.67년생 기특한 정성을 넉넉하게 받아내자.79년생 이해는 하지만 미움은 더해진다.91년생 머릿 속 구상을 밖으로 꺼내보자.03년생 신명 나는 부름에 걸음을 서두르자.

56년생 부탁하는 입장 허리부터 숙여내자.68년생 간단해 보여도 땀을 흘려야 한다.80년생 어떤 유혹에도 돌부처가 되어보자.92년생 절대 믿음으로 처음을 지켜내자.04년생 큰 일 치른 후에 편안함에 빠져보자.

57년생 어깨춤 덩실덩실 경사를 맞이한다.69년생 큰 소리 호언장담 숙제만 남겨진다.81년생 행복 꽃 피어지는 인연을 만나보자.93년생 단단했던 결심 완성이 보여진다.05년생 제법인 솜씨로 부러움을 받아내자.

58년생 벅차고 아름다운 결과가 남겨진다.70년생 사랑하고 싶어진 제안을 들어보자.82년생 열심히 했던 준비 출발선에 서보자.94년생 뒤를 따르는 겁쟁이가 돼야 한다.06년생 달아오른 분위기 애정표현해보자.

47년생 술이 달달해지는 기쁨에 빠져보자.59년생 빠르고 정확한 마무리를 해내자.71년생 까칠했던 입맛에 호사를 줄 수 있다.83년생 눈물샘을 닦고 다시 웃을 수 있다.95년생 승부는 거칠게 이기려고 애를 쓰자.

기고

광양의 발효식품 '동치미 마을'로 잇는다.

김부각은 바람이 좋은 날 말린다. 햇살이 적당하고, 습기가 많지 않으며, 바람이 미지근하지도 않고 날카롭지도 않을 때. 발효음식은 그런 자연의 리듬을 아는 사람들이 만든다. 광양은 그런 리듬을 품고 있는 도시다.

전라남도 광양을 떠올리면 많은 이들이 제철소나 매화꽃을 먼저 말하지만, 이 도시의 또 다른 얼굴은 '시간이 만든 맛'이다. 광양의 발효음식은 단순히 오래된 조리법이 아니라, 기다림과 자연, 그리고 사람을 향한 마음이 함께 담긴 결과물이다. 김치 한 포기, 장 한 항아리에 담긴 계절과 기억은 도시의 역사와도 맞닿아 있다. 광양 옥룡에서 민박을 운영해온 오정숙 씨는 발효와 함께 살아온 사람이다. 그녀는 '매화랑매실이랑'이라는 교육장을 운영하며 매실을 활용한 발효제품을 직접 만들고 있다. 장아찌, 액기스, 장류 등 종류만 해도 50여 가지에 달한다.

그녀의 활동은 단순히 만드는 데 그치지 않는다. 전통음식 만들기 체험, 지역 여성문화센터 출강 등으로 광양의 발효문화를 도시민에게 전하고 있다. 농촌의 계절과 수고를 도시의 일상 속으로 끌어들이는 일이다.

그녀의 블로그에는 그런 일상의 기록이 차곡차곡 쌓여 있다. 김부각이 잘 마를 수 있는 날씨와 기온은 물론, 장을 담그며 느낀 변화, 계절마다 재료가 다르게 반응하는 방식, 새로운 발효 음식에 대한 실험까지. 그것은 한 사람의 음식일기이자, 광양이라는 지역의 미각기록이다.

광양의 발효문화는 오정숙 씨와 같은 사람들의 손끝에서 이어져 왔다. 조용히 제 몫을 다하는 이들이 있었기에 광양의 발효문화는 끊기지 않고 전해지고 있다. 이제 그 문화는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다.

광양시는 이러한 흐름을 제도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백운산 발효촌 동치미 마을'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필자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장으로서, 이 사업이 단순한 음식 제조 공간을 넘어선 문화적 의미를 지닌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2028년 완공을 목표로 발효 텃밭 조성, 김치 담그기 체험, 발효식품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발효문화를 도시민과 관광객에게 전달하는 복합 문화 공간이 될 예정이다.

이곳에서 발효는 단순한 음식이 아닌, 지역 고유의 정체성을 담은 문화콘텐츠로 새롭게 태어날 것이다. 광양에서 나고 자란 농산물은 발효의 시간을 거쳐 매실청이 되고, 동치미가 되고, 기정떡이 된다. 동치미 마을은 이러한 발효의 과정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광양의 발효문화를 도시 밖으로 확산시키는 거점이 될 것이다.

광양의 발효는 단순히 장독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봄에 담가 여름 내내 숙성시킨 매실청 한 병, 풋풋하게 익은 싱건지(동치미) 한 그릇, 찹쌀과 시간을 빚어 만든 기정떡 한 판. 이 음식들은 냉장고 속에서는 결코 태어날 수 없는 맛을 담고 있다.

이제 광양은 발효의 시간을 지역산업과 연결할 계획이다. 발효식품 아카데미와 동치미 마을 조성은 단순히 맛을 체험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발효식품 표준화 연구, 글로벌 시장 진출, 할랄 인증, MBN과 홍보 협력 등을 통해 발효문화를 지역산업으로 확장하는 비전을 품고 있다.

광양의 발효는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탄생한다. 입안에 퍼지는 풍미보다 오래 남는 건, 그것을 만든 사람의 손과 마음이다. 광양의 동치미 한 모금, 김부각 한 장에는 시간과 정성이 배어 있다. 그리고 그 맛을 오늘도 누군가는 조용히 이어가고 있다. 발효는 시간의 기록이자, 사람의 기록이다. 그리고 광양은 그 시간을 지키고, 이어가고, 새로운 미래로 확장시켜 나가고 있다. 필자는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발효식품을 넘어, 광양의 발효문화와 동치미 마을이 K-푸드로 세계와 연결하는 새로운 장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이해인 광양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장/순천대 식품영양학과 조교수

광전매일신문 e-mail : gwangmae5678@hanmail.net
회 장 이송암 발행인 · 대표이사 정길화
편집인 전광춘 편집국장 박선주
2016년 8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 00065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 20번길 8. 2층
대표전화 (062)525-9775 <팩 스>(062)528-4566
회 장 실 (내선)210 편 집 국 교 2001
임 원 실 (내선)207 정 경 부 교 2003
총 무 국 교 2002 사 회 부 교 2004
광 고 국 교 2006 사 업 국 교 2007
인쇄 :(주)대한칼라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13,000원 · 1부700원